

An Examination of the Effect of Self-esteem on Aggress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Eun-Jin Cha*

*Adjunc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According to the 'low self-esteem hypothesis', low self-esteem plays a causal role in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whereas 'threatened egotism theory' postulates that aggression is related to a highly favorable view of the self.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esteem on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5th and 6th wave data from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The results showed that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aggress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Finally, research implications which contribute to enhancing self-esteem as well as decreasing aggression were also discussed.

▶ **Key words:** Self-esteem, Aggression, Low self-esteem hypothesis, Threatened egotism theory, KCYPs

[요 약]

‘낮은 자아존중감 가설’에 의하면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공격성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반면, ‘위협받는 자부심 이론’은 높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증진과 공격성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였으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낮은 자아존중감 가설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공격성을 낮출 수 있는 실천적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자아존중감, 공격성, 낮은 자아존중감 가설, 위협받는 자부심 이론,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 First Author: Eun-Jin Cha, Corresponding Author: Eun-Jin Cha
 - Eun-Jin Cha (Jin1417@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Honam University
 - Received: 2020. 05. 27, Revised: 2020. 10. 06, Accepted: 2020. 10. 06.

I. Introduction

청소년기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유능한 존재 혹은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정도를 말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보람 있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불안이나 우울 등에 취약하여 불행한 심리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공격성의 원인변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정되지만 그 영향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 가설(low self-esteem hypothesis)'을 검증하는 연구들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을 높이는 반면, 높은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을 낮춘다[1, 2]. 즉,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반면에, '위협받는 자부심 이론(threatened egotism theory)'을 검증하는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더 공격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3, 4]. 즉,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두 가지 이론적 접근법 중 어느 이론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보다 잘 설명하는 것인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 문제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증진과 공격성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낮은 자아존중감 가설과 위협받는 자부심 이론 중 어느 것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보다 잘 설명하는가?

현재까지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려는 연구가 비교적 제한적인 상황인데, 본 연구는 전국 차원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이론적 관점에서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규

명하려는 단기 종단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존경하거나 혹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개인적인 지각을 말하는데, 이는 곧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이다[5].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이나 칭찬을 받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더 존중하는 개인적인 평가이며, 청소년이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개인의 성격의 발달과 환경에의 적응 및 긍정적 자아실현에 필수적인 중요한 성격특성이다[5].

공격성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행동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공격성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물리적·언어적 행동 등 모든 형태의 사고 및 정서와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7]. 공격성을 개인의 타고난 특성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격성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 생애과정의 초기에서 나타나며,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성격적 특성이다[8].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사회적응 수준이 낮고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가능한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7].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두 가지 상반된 이론적 관점이 공존한다. 첫째, 낮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의 선행변수라는 주장은 '낮은 자아존중감 가설'로 지칭된다. 이 입장에 의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애착을 낮추고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해석된다[1]. 낮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의 증가로 이어지는 이유는 첫째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공격성을 외부로 보여줌으로써 스스로의 힘이 높아졌다는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자 의도하기 때문이며, 둘째로, 열등감이나 수치심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문제나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외부지향적 의도가 공격성의 발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2]. 낮은 자아존중감 가설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타당성을 검증받았다[9-15].

둘째, 높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위협받는 자부심이론'으로 불린다. 이 이론에서

공격성을 높이는 원인은 낮은 자아존중감이 아니라 높은 자아존중감이다. 환언하면, 이 이론은 보통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진 모든 사람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지나치게 높거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일부 인구집단의 공격적 행동을 설명하는 관점이다. 즉, 자아존중감이 매우 높거나 불안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공격이나 비난에 의해 자부심이 손상되었다고 인식할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공격적 행동을 취한다[3, 16-19].

결론적으로,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두 가지 접근법은 모두 이론적·실증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접근법 가운데 어느 이론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III. Research Method

1.1 Subjects and Data Collection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하여 공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1패널 자료 중 제5차(고등학교 2학년)와 제6차(고등학교 3학년)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통계분석을 위해 2개의 조사 시점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문항에 대하여 결측치 없이 응답한 2,00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1.2 Research Model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 가설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위협받는 자부심 이론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이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을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개인특성 변수인 성별, 소득수준, 건강상태를 통제하였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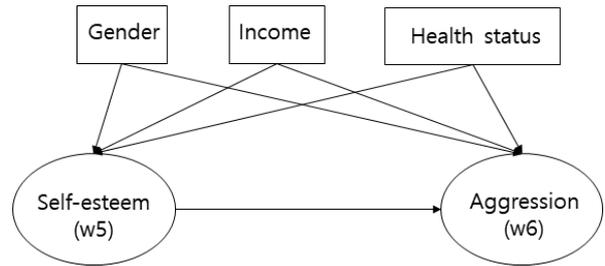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1.3 Measurement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으로 측정되었다[20].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며, 부정적 내용의 5문항을 역채점하여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는 뜻이다. 자료의 분석 단계에서 긍정적 내용(5문항)과 부정적 내용(5문항)의 평균을 이 변수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공격성은 조봉환·임경희(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공격성 척도 6문항으로 측정되었다[21].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서, 역채점을 통해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더 강하다는 의미를 지니도록 만들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이 변수의 단일차원성을 확인하였으며, 항목 묶기(item parceling)를 통해 이 변수의 3개 지표를 생성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은 더미변수(남자=1, 여자=0)로 처리되었으며, 가정의 소득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단일문항의 서열변수로 측정되었으나 통계분석 단계에서 연속변수로 처리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이 척도로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들이 모두 양호한 수준의 요인적재량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신뢰도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10문항)의 신뢰도 Cronbach $\alpha=0.857$, 공격성(6문항)의 신뢰도 Cronbach $\alpha=0.794$ 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1.4 Data Analysis

자료 점검 및 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점검단계에서는 변수의 리코딩, 변수 합산,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 단계 중 측정모형의 검증 단계에서는 최대우도추정 방식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변수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연구모형의 검증 단계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IV. Research Results

1.1 General Characteristics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자 50.8%, 여자 49.2%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득수준을 보기 위해 가정의 경제수준을 평가하였는데, 잘 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9.6%,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은 63.0%, 못산다는 응답은 17.4%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건강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0.5%,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1.2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상관관계분석 결과,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316, p<0.001$). 상관관계에 내재된 인과성을 본질을 감안할 때 이 분석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더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술통계량을 보면,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에서 평균 2.9점(표준편차 0.45)으로서 중간 수준을 상회하였고, 공격성은 4점 척도에서 평균 1.93점(표준편차 0.53)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1).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이 두 변수들이 자료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하였다[28].

Table 1.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1)	2)	3)	4)	5)
1) Gender	1				
2) Income	0.04	1			
3) Health status	0.09**	0.14**	1		
4) Self-esteem	0.07**	0.20**	0.27**	1	
5) Aggression	-0.07**	-0.07**	-0.18**	-0.27**	1
M	0.51	4.06	3.13	2.90	1.93
SD	0.50	0.91	0.59	0.45	0.53
Max	1	7	4	4.00	4.00
Min	0	1	1	1.50	1.00
Skewness	-0.03	0.26	-0.30	0.02	0.09
Kurtosis	-2.00	1.73	0.96	-0.14	-0.44

Dummy var: Gender(male=1, female=0), *** $p<0.001$

Table 2. Results: Measurement model

Var.	b	β	C.R.	p	AVE
Self-esteem					0.621
Negative_SE	1.000	0.825	-	-	-
Positive_SE	0.812	0.749	12.451	***	-
Aggression					0.584
Aggression_3	1.000	0.695	-	-	-
Aggression_2	1.671	0.852	28.100	***	-
Aggression_1	1.474	0.737	27.780	***	-
Model fit	$\chi^2=43.491, df=4, p=0.000, TLI=0.968, CFI=0.987, RMSEA=0.070$				

1.3 Measurement Model

본 연구의 잠재변수들이 측정변수에 의해 적절히 측정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추정 방식으로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여 측정모형을 통해 재생된 자료가 실제 모집단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Table 2).

이어서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있어서 전체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그 값이 0.5보다 더 컸으며, 평균분산추출(AVE) 값도 0.5보다 더 큰 값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이 두 변수가 각각 양호한 집중타당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의 AVE(0.621)와 공격성의 AVE(0.584)가 모두 이 두 변수 간의 결정계수(상관관계계수의 제곱, $r^2=0.117$)보다 더 컸다. 따라서 이 두 변수 간에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4 Research Model

주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TLI를 제외한 적합도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통계학적 기준을 충족하였다. TLI는 통계학적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로서 본 연구모형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Table 3).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보면,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16, p<0.001$).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유의하게 더 낮다. 또한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소득수준, 건강상태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반면에, 성별, 소득수준, 건강상태는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ig. 2).

Table 3. Results: Research Model

Paths	b	β	C.R.	p
Self-esteem → Aggression	-0.251	-0.316	-10.047	***
Gender → Self-esteem	0.047	0.062	2.548	0.011
Income → Self-esteem	0.080	0.189	7.504	***
Health status → Self-esteem	0.192	0.294	11.016	***
Gender → Aggression	-0.028	-0.045	-1.904	0.057
Income → Aggression	-0.001	-0.002	-0.100	0.921
Health status → Aggression	-0.013	-0.025	-0.976	0.329
Model fit	$\chi^2=225.527$, $df=16$, $p=0.000$, $TLI=0.896$, $CFI=0.941$, $RMSEA=0.081(0.072\sim 0.090)$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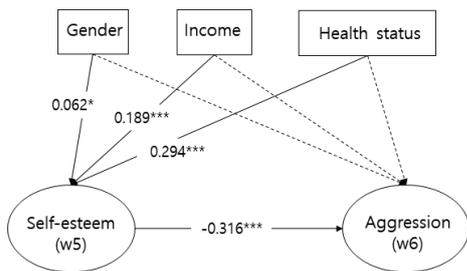


Fig. 2. Final Research Model

V. Discussion and Conclusions

본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을 갖춘 전국 수준의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검증한 단기 종단연구로서, 이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횡단연구보다 더 명확히 검증하였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더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인식이 활발해지는 시기이자 공격성,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해당한다 [22]. 동시에 청소년기는 전 생애과정 중 공격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23].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제고를 통해 공격성 문제를 예방하거나 사후에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을 낮추는 선행변수임을 보고한 다수의 기존연구를 재확인하는 것이다[1, 2, 13, 15, 17, 24].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갖고 있다. 먼저 이론적인 면에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의 관련성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보완하였다. 첫째,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을 낮추는 유의한 변수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의 관계는 ‘낮은

자아존중감 가설’의 논리구조로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공격성을 낮추는 자아존중감의 유의성이 확인된 만큼 자아존중감의 증진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입은 그 자체로서 중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낮추는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각 급 학교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25]. 또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수준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므로 향후 성별을 고려한 개입방안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26, 27].

REFERENCES

- [1] 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 Ostrowsky, M. K., “Are violent people more likely to have low self-esteem or high self-esteem?”,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ur, Vol. 15, No. 1, pp.69-75, Jan.-Feb. 2009. doi:10.1016/j.avb.2009.08.004
- [3]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Vol. 103, No. 1, pp.5-33. Feb. 1996. DOI: 10.1037//0033-295X.103.1.5
- [4] Bushman, B. J., Baumeister, R. F., Thomaes, S., Ryu, E., Begeer, S. & West, S., “Looking again, and harder, for a link between low self-esteem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Vol. 77, No. 2, pp.424- 446, Apr. 2009. DOI: 10.1111/j.1467-6494.2008.00553.x
- [5] Kim, C. G., “Individual and socio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elf-esteem in adolescent”,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8, No. 1, pp.91-107, Apr. 2006.
- [6] Koh, S.-J., Lee, E.-H., Na, Y.-J., Hwang, J.-S., & Park, S.-H.,

- “The effect of personal, familial, educational, Internet factors on adolescent's self-esteem according to the age and gende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2, No. 6, pp.13-26, Oct. 2004.
- [7] Lee E.-A., & Cheon, S.-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ggression scal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5, No. 3, pp.477-495, Jul. 2013.
- [8] Lee, S.-J., & Kim, J.-H., “The effects of aggressiveness, parental attachment on hours of computer use of early teenager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 13, No. 4, pp.495-516, Oct. 2014.
- [9] Kim, M. S., Jun, S. Y., Cho, Y. S., & Jone, H. J.,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on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ts with delinquent behavior”,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31, No.1, pp.1-9, Apr. 2018
- [10] Suh, I.-S., Cho, O.-S., & Um, S.-O., “The effect of results of early youth's self-esteem and depression is life satisfaction: Aggression behavior media effec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6, pp.153-163, Jun. 2019.
- [11] Lee, C. S., & Jang, H. Y., “Moderating effect of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ggress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1, pp.47-53, Jan. 2018.
- [12] Tak, H.-Y., & Cho, G.-P.,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childre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depression or parenting stress and agg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22, pp.207-226, Nov. 2019.
- [13]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Vol. 16, No. 4, pp.328-335, Sep. 2005.
- [14] Schanz, Y. Y.,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self-esteem among prison inmate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DOI: 10.1080/10926771.2017.1331940 Jun. 2017.
- [15] Sprott, J. B., & Doob, A. N., “Bad, sad, and rejected: The lives of aggressive children”,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Vol. 42, No. 2, pp.123-133, Apr. 2000. DOI: 10.3138/cjcrim.42.2.123
- [16]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J.,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9, No. 1, pp.26-29, Feb. 2000.
- [17] Cale, E. M., & Lilienfeld, S. O., “Psychopathy factors and risk for aggressive behaviors: A test of the "threatened egotism" hypothesis”, *Law and Human Behavior*, Vol. 30, No. 1, pp.51-75, Feb. 2006. DOI: 10.1007/s10979-006-9004-5
- [18] Richman, L. S., “Threatened Egotism Theory of Aggression”. In Baumeister, R. F., & Vohs, K. D. (eds.), *Encyclopedia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NY: Sage Publishing, 2007.
- [19] Shaheen, F., & Jahan, M., “Role of self esteem in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among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Psychological Research*, Vol. 3, No. 4, pp.54-57, Dec. 2014.
- [20] Korea University, Behavior Science Research Center, *Psychometrics Handbook*, Seoul: Korea University, 2000.
- [21] Jo, B. H., & Im, G. 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5, No. 4, pp. 729-746, Nov. 2003.
- [22] Rice, F., Frederickson, N., & Seymour, J., “Assessing pupil concerns about transition to secondary school”,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1, No. 2, pp.244-263, Jun. 2011. DOI: 10.1348/000709910X519333
- [23] Kim, W., & Kim, K., “The effect of overprotective parenting,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aggression among Korean youth”,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4, pp.77-103, Apr. 2020.
- [24]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k, C.,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 pp.1004-1018, Dec. 1989.
- [25] Lee, S. J., & Chung, I.-J., “A meta-analysis of self-esteem enhancement programs for childr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8, No. 3, pp.45-74, Jul. 2018.
- [26] Singh, B., Hassan, A., & Wani, M. A., “Aggression and self esteem among teenagers”, *Global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3, No. 2, pp.1-3, Sep. 2017.
- [27] Ifeanacho, N. C., & Nwokolo, E. E., “Effects of self-esteem and fender on aggressive behavior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logy*, Vol. 8. No. 2, pp.61-67, Jul. 2017.
- [28] Kline, R. B.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Guilford, 2015.

Authors



Eun-Jin Cha received the M.A. degree in Social Welfare and Ph.D. degree in Social Welfare from Honam University, Korea, in 2007 and 2011, respectively. She is currently an Adjunc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nam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olicy,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Research Methodology.